

도시개발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신축부지선정에 관한 연구

- 전주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ite Selection of Public Library by the
Development of Urban Community

최 흥 식(Heung-Sik Choi)*

초 록

본 연구는 도시개발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신축부지선정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을 살펴보고, 일반적인 부지 특성과 입지기준을 고찰하였다. 또한 전주시를 대상으로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정보문화활동에 관한 각종 지표 및 통계자료를 조사하였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공공도서관 설립 비전과 목적을 수립하고, 부지선정 계획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신축부지선정과 지방정부의 도서관정책개발 및 예산확보의 타당성 근거로 활용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various aspects of site selection for constructing new public library by development of urban community were investigated. These are legal aspec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criteria of selecting conditions of location for new building. In order to select the suitable site in the Jeon Ju City, the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indices with regard to information and cultural activities of the local residents and a statistical data was investigated. And also, a user question investigation was executed. The vision and objectives of establishing new public librarie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help the library policy maker to develop the library policy and to secure a budget from the regional government.

키워드: 지역공공도서관, 부지선정, 공공도서관, 도시개발
regional-public library, selection of site, public library, development of urban community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choi6367@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2월 13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3월 6일

1. 서론

도시란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및 행정 문화, 교통망, 편의시설 따위의 중심지가 되며, 인구가 집중하여 그 밀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는 자연적으로 확대 혹은 축소되기도 하지만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급속하게 확대·변화되기도 한다. 계획적으로 의도된 개발도시는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많은 주민의 이동을 유발하고, 이동 주민을 위한 사회적 공공기관을 수반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급속한 사회 및 도시변화와 함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공공도서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공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정보, 교육, 문화 등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지금도 그 사명과 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과거에 비하여 오늘날 정보는 보다 세분된 전문적 지식정보로 변화되었고, 교육은 창의성이 강조되는 열린 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문화는 시민생활과 근접하여 일체감을 이루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도서관은 사서의 전문적 정보 서비스와 함께 이용자 스스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도록 자율적 학습능력배양이 강조되어 왔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정보 공간이면서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수적인 부족과 질적 운영의 열악함으로 이러한 기능을 쉽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도서관의 질적 수준은 도시의 지리적 환

경과 이용자의 밀집도 등을 고려한 도서관 수와 무관하지 않다. 아무리 수준 높은 도서관이라도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면 높지 않은 이용률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용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불가능하여 이들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개발은 의도적으로 많은 인구유입을 전제로 계획되었던 만큼, 거기에 많은 시민이 있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과 각종 민원 및 공공기관이 있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주변 도서관의 여건과 상황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새로운 공공도서관 설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도시개발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신축관련 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초기단계에서 수립해야 할 부지선정에 대한 이론적 사항을 고찰하고, 실제 전주시를 대상으로 현재의 도시 전반과 미래의 도시 확장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부지선정 및 미래 발전에 관한 문헌자료와 지역주민들의 정보문화활동에 관한 각종 지표 및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공공도서관 설립 비전과 목적을 수립하고, 광의적인 부지선정 계획수립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은 한 도시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계획하고 도시개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장소가 확정된 부지에 대한 기존의 타당성 조사와 다르다. 본 연구대상은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하에서 도시개발을 주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립 및

반영의 효율성과 긴밀함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또한 운영주체가 다른 공공도서관이 1곳(전북도교육청)에 지나지 않고, 대학 및 각종 문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들을 참고할 것은 물론이다. 본 연구는 신설 공공도서관의 비전과 목적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도시균형발전을 통한 공평한 정보문화혜택을 기대함과 동시에 향후 시의 도서관 정책개발 및 예산확보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큼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검토하여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기준내용과 하나로 일치하는 장소가 흔치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 편의보다는 공급자 편의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의 지역적 중복 또는 부재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인구규모, 통행거리, 간선도로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하나 지가가 높고 부지확보가 곤란해 도서관의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균등한 배분이 가능한 구체적인 도서관의 입지결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규칙의 도서관 결정기준은 <표 1>과 같다.

2. 공공도서관 건축관련법규 및 입지 특성

2.1 공공도서관 건축관련법규

1)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의 도서관 결정기준은 대체적으로 지역특성과 기능, 규모, 접근성, 이용인구, 배치간격, 주차장과 조경, 장래의 확장성과 교통시설, 이동문고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법률적 규칙인

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살펴보면, 봉사대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2만에서 50만 이상을 6구분하여 건물과 열람수, 기본장서와 연간증서수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

<표 1>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도서관 결정기준)

법령	내용
도서관의 결정 기준(제10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것 2.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도심지에 설치하되,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할 것 4.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5. 도심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조경 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것 6. 눈에 잘 띄이는 장소로서 대지가 평평하고 도로에서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7. 장래의 확장에 필요한 면적과 교통시설의 확대, 이동문고차의 운행 및 조경을 위한 면적이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한 봉사대상인구를 도서관이 설치되는 당해 시(구가 설치된 시 제외)·구·읍·면의 인구수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 이상인 공립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 이상이어야 하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는 전체 열람석의 10%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사립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봉사대상기준인구 2만 미만에 대한 시설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3) 도시계획법 시행령

이 영은 도시계획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법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관점에서는 용도지역과는 무관하게 어느 지역이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으며, 문화 및 복지시설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교육 및 복지시설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국한되며, 이차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도 허용된다. 그 외에 공공도서관 건립후보지에 필요한 대지확보를 위하여 후보지내에 있

는 국공유지 확보에 따른 관련법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내에서의 용도제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 2 공공도서관의 입지특성 및 기준

1) 입지특성

공공도서관은 이용계층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대상 지역의 규모, 인구분포, 문화시설 및 자연적 지역경계와 지리적 접근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입지는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핵심적 관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활동중심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높지 않은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도서를 비롯한 매체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들 상호간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시설임을 간암한다면 지역주민 활동의 중심지에 입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입지기준

한국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 표준모형개발연구(1991)에 나타난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입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봉사대상 기준인구	시설		자료	
	건물(㎡)	열람수(석)	기본장서	연간증서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이상	300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이상	600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이상	15,000이상

〈표 3〉 지역내에서의 용도제한

용도 지역	구분	건축 층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바닥면적 1천m ² 이하)	×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바닥면적 1천m ² 이하)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	○	×	○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연면적 500m ² 이하)	×	○	△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	×	○	○

첫째, 교통의 접근성이다. 해당 자치구 내부의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입지해야 한다. 즉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적인 교통축상의 접근성이 유리한 장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해당 자치구는 물론 도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의 중심성이다. 지역내 정보센터의 상징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중심적 지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사회, 문화활동의 중심지이어야 하며, 인구밀집 지역과 동시에 널리 알려져 찾기 쉬운 인지도와 친근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형 및 지세를 고려해야 한다. 공공도

서관은 도서관의 결정기준(제105조)에 의하면, “눈에 잘 띄이는 장소로서 대지가 평평하고”처럼 도서관 건립시 공공도서관 기능의 효율적인 이용가능성과 건물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사도, 표고, 배수상태 등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넷째, 환경적 쾌적성이다. 공공도서관은 주변지역에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가 있는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입지하여야 하며, 환경적 오염원이 없고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지역정보센터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업추진의 용이성이다. 비용-편익 분석상 효율적인 투자사업이 되어야 하며, 해당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가 선정되도록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간략하게 표시하면 <표 4>와 같다.

3. 전주시립도서관현황과 국내의 비교분석 및 이용자조사

3.1 도서관현황 비교분석

전주시는 2개 구(완산구, 덕진구), 40개 동으로 이루어진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로서 인구는 620,374명(2003/12/31)이다. 전주시의 공공 및 특수도서관은 시립의 본관인 완산도서관과 금암, 인후, 삼천분관이 있고, 도교육청 산하인 전북학생회관(도서관) 등 5개 관이 있다. 이외에, 특수계층을 위한 도서관으로 사립인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한국점자도서관(전북분관)이 있고, 대학도서관으로 국립대학교(전북대, 전주교대) 2개, 사립대학(전주대, 우석대, 한일

장신대) 3개, 전문대학(전주공전, 기전여대, 예수간호대) 3개 등 모두 8개의 대학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사립문고는 대부분 한국사립문고협회 전북협의회 소속 문고들로서, 현재 전주독서문화원을 비롯하여 약 33개의 문고가 설치되어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주시립도서관 위치도

<표 4> 공공도서관의 입지선정 검토사항

입지요소	평가항목	평가기준
교통의 접근성	교통의 결절지 도보로의 접근 편의성 시내버스와의 접근성	자치구내 교통축상의 결절점 접근도로의 폭 시내버스정류장에서의 도보거리
지역의 중심성	지역의 인구밀도 반경(유효방사인구) 주변지역의 위치적 중심지 주변지역의 인지도 및 친근성 기존 도서관과의 거리	입지후보지 주변동의 인구 각종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지
지형 및 지세	부지의 안정성 부지의 접근성 부지의 자연재해도	부지의 경사도 부지의 표고 부지의 배수상태
환경적 쾌적성	주변지역 오염발생원의 밀집도 자연공원 등의 오픈스페이스	단위반경당 공장면적 광장, 자연공원 등 쾌적성을 갖춘 지역
사업추진 용이성	부지의 토지가격 부지확보의 용이성 행정축면면	부지의 공시지가 부지매입과 관련한 비용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

1) 전국공공도서관과의 비교

2003년 현재 전국의 시도교육청산하 공공도서관과 민간에서 관할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공도서관은 212개 관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평균 1관 당 인구는 104,394명으로 인천이 286,443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 266,259명, 서울 226,829명, 대구 194,293명, 부산 162,179명, 경기 160,121명의 순이다. <표 5>를 보면, 전북은 1관 당 인구는 55,824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1번째로 높다. 전주시는 1개 도서관 당 인구수에서 155,078명으로 서울, 인천, 울산, 대구 등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고, 1인 당 장서수도 0.55권으로 전국평균인 0.64보다도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 1인 당 서비스 대상 인

구수에 있어서도 36,493명으로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세계 주요도시와의 비교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한 전주시 공공도서관은 그 수에 있어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도서관 당 인구수에서 전주시는 헬싱키, 런던, 베를린, 디트로이트 등의 도시와 비교할 수 없고, 1인 당 장서수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주시 도서관 당 인구수는 약 155,087에 이르고 있지만, 헬싱키는 3,988명에 불과하고, 런던은 17,849명, 베를린은 18,306명에 불과하다. 이는 헬싱키와 비교했을 때, 약 40배에 이르고, 아시아 지역인 도쿄 37,467명, 타이페이 80,401명, 싱가포르 50,203명과 비교해서도 많

<표 5> 전국도서관의 일반 현황

구분	인구(천명)*	도서관수 *시도산하도서관	1관 당 인구 (명)	1석 당 인구 (명)	1인 당 장서수 (권)	사서 1인 당 서비스 대상인구*
서울	10,373	10	226,829	345	0.49	31,712
부산	3,812	8	162,179	300	0.59	26,845
대구	2,538	0	194,293	218	0.62	22,263
인천	2,562	3	286,443	329	0.42	30,867
광주	1,375	6	116,454	107	0.76	20,833
대전	1,391	9	118,298	129	0.84	17,172
울산	1,004	0	266,259	227	0.37	25,100
경기	9,280	50	160,121	237	0.52	42,181
강원	1,599	15	40,493	100	1.27	14,405
충북	1,505	7	67,851	175	0.68	26,403
충남	1,930	19	48,916	152	0.84	32,711
전북	2,007	15	55,824	124	0.71	28,671
전남	2,135	22	51,355	119	1.05	25,117
경북	2,814	21	55,135	137	0.83	33,105
경남	3,109	16	78,110	173	0.67	24,872
제주	543	11	30,602	93	1.40	16,968
전주	620	4	155,078	164	0.55	36,493
전국	48,230	212	104,394	196	0.64	-

* 한국도서관통계 2003년에서 재구성

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1인 당 장서수를 비교할 경우, 전주시가 0.55권인데 비하여 헬싱키가 14.56권, 파리 5.90권, 시카고 5.20권이다. 세계 주요도시의 평균 장서수는 2.55권으로 나타나, 전주시 공공도서관은 매우 부족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3) 유사지역과의 비교

국내 주요도시의 일반적 도서관현황분석에 이어 전주시와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는 유사 도시의 도서관 현황 및 관련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의 도서관 현

상을 가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미래 도서관 신축계획에 반영할 목적으로 하였다. 유사 지역선정은 연구범위의 동일성을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적 운영사례가 우수한 도서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주시보다 조금 큰 도시 1곳, 비슷한 도시 1곳, 작은 도시 1곳을 선정하였다. 우수한 도서관을 선정한 이유는 앞으로의 발전적 측면을 고려하였고, 우수사례 지역을 인구별로 차별화한 이유는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정이었다.

<표 6> 세계 주요도시 공공도서관 현황 비교

주요도시	기준 연도	관 수(관)	장서수(천권)	인구(인)	연간이용자수(인)	도서관 당 인구수	1인 당 장서	1인 당 연간 이용횟수
런던	1991	386	19113	6,889,900	59,668,686	17,849	2.77	8.66
파리	1999	62	12536	2,125,246	400,000	34,278	5.90	0.19
베를린	1999	185	8378	3,386,667	22,993,624	18,306	2.44	6.79
로마	1996	36	435	2,645,322	937,562	73,481	0.16	0.35
뉴욕	2000	213	-	8,008,278	-	37,598	-	-
시카고	1996	81	14561	2,802,079	7,839,041	34,594	5.20	2.80
디트로이트	1990	63	4400	1,027,974	3,200,000	16,317	4.28	3.11
휴스턴	1992	36	-	1,635,827	-	45,440	-	-
워싱턴	1995	24	1804	519,000	1,939,000	21,625	3.48	3.74
필라델피아	1990	54	3375	1,585,577	4,200,000	29,363	2.13	2.65
도쿄	1999	217	32083	8,130,408	772,540,904	37,467	3.95	8.92
오사카	1996	26	3182	2,599,642	318,132	99,986	1.22	0.12
나고야	1992	16	3188	2,108,000	6,767,143	131,750	1.51	3.21
베이징	1995	23	-	10,617,000	-	461,609	-	-
상하이	1992	31	16420	12,893,700	7,590,000	415,926	1.27	0.59
홍콩	2000	67	8306	6,796,700	32,919,000	101,443	1.22	4.84
타이페이	1993	33	2192	2,653,245	6,525,293	80,401	0.83	2.46
싱가포르	2000	65	7294	3,263,200	21,096,684	50,203	2.24	6.47
모스크바	1992	416	27400	8,801,000	2,195,000	21,156	3.11	0.25
헬싱키	1998	137	7956	546,317	234,068	3,988	14.56	0.43
서울	2002	43	6952	10,373,000	15,424,412	241,332	0.67	1.50
전주	2003	4	345,135	620,374	1,490,551	155,087	0.55	2.40

* 전주, 서울에 관한 자료 : 한국도서관통계자료 2003, 전주시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주요 외국 도시 : 강서구, 강서구립도서관 타당성 조사, 2002. 8. p. 30.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경기도 고양시와 안양시, 그리고 춘천시의 공공도서관을 각각 선정하였다. 조사분석 항목은 간략한 건축관련 항목으로 인구현황, 도서관현황, 1관 당 인구수, 도서관시설규모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먼저, 선정도시의 행정체계는 춘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2개의 구체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고양시는 35개 동, 안양시는 31개 동, 전주시는 4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유사한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인구현황(2003년말 기준)은 고양시가 840,345명, 안양시 597,656명, 춘천시 253,532명, 전주시는 620,37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세대수는 고양시가 284,357세대, 안양시 198,632세대, 춘천시 86,815세대, 전주시 201,263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1관 당 인구수는 고양시가 168,069명으로 가장 높고, 전주시는 155,08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보다 약 50,000여 명이 많고, 전북의 평균보다 약 10만여 명이 많은 것으로, 도서관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선정지역 도서관의 개관을 살펴보면, 고양시는 5개도서관이 개관(2004년 백석, 화정도서관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양시는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여 5개 관이 개관 중이다. 또한 춘천시는 2004년 7월 중으로 시립도서관이 증축 개관할 예정을 포함하여 4개도서관이 운

영중이다. 전주시도 4개 도서관이 개관, 운영하고 있고, 송천도서관이 현재 건립 중이다. 이들은 모두 대표적인 중앙도서관이 있고, 그 아래에 관리운영을 감독받는 분관형태의 도서관이다. 그러나 명칭에 있어서는 고양시립원당도서관, 안양시립평촌도서관 등 독립된 도서관명칭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전주시립삼천분관 등 분관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양의 경우에는 최근에 설립된 석수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되고, 지금까지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만안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관리를 받는 분관으로 전환하였다. 이들 도서관의 시설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전국도서관통계(2003)에 의하면 전국공공도서관부지의 평균은 4,613㎡이고, 전북평균은 4,490㎡이다. 또한 조사대상 도시의 공공도서관에서 고양시는 4,246㎡이며, 안양시는 10,102㎡, 춘천시는 5,329㎡, 전주시는 4,339㎡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주시는 전국평균뿐만 아니라, 전북평균 보다도 적게 나타났다. 건물면적의 전국평균은 2,397㎡이고, 전북평균은 2,113㎡이며, 전주시는 3,573㎡로 조사되어 전국과 전북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주시는 대지면적은 적은데, 건축면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협소한 부지공간에 많은 시설

<표 7> 행정체계 및 1관 당 인구수 비교(2003년 전국도서관통계)

주요도시명	구	읍,면,동	인구수			세대수	1관 당 인구수	전국평균 1관 당 인구수
			합계	남	여			
경기 고양시	2개 구	35동	840,345	417,630	422,715	284,357	168,069	104,394명
경기 안양시	2개 구	31동	597,656	299,875	297,781	198,632	119,531	
강원 춘천시	1읍,9면,15동		253,532	125,430	128,102	86,815	63,383	
전북 전주시	2개 구	40동	620,374	306,550	313,824	201,263	155,087	

〈표 8〉 도서관 시설 규모 현황 비교(2003년말 현재)

주요 도시명	공공도서관명	주요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열람석			시청각 실(㎡)	어린이 자료실(㎡)	기타 시설
				합계	일 반	자 료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마두도서관	3,756	3,851	855	267	588	181	198	정보검색실
	고양시립행신도서관	3,132	2,323	652	132	520	119	120	인터넷사랑방
	고양시립원당도서관	5,850	1,583	348	276	72	-	86	정보검색실
	고양시립백석도서관	4,347	4,070	1,000	234	766	205	267	노인, 장애우 정보검색실
	고양시립화정도서관	4,149	4,580	1,000	222	778	173	279	노인, 장애우 정보검색실
	평균	4,246	3,281	771	226	544	135	190	-
경기 안양시	안양시립중앙도서관	13,713	10,652	2,000	394	1606	139	101	노인, 장애우 유아, 이야기방, 만남방 등
	안양시립만안도서관	11,475	4,190	920	592	328	84	96	관외대출실
	안양시립평촌도서관	10,000	3,624	806	376	430	153	150	향토자료실
	안양시립호계도서관	5,220	2,865	850	450	400	220	190	전자정보관
	평균	10,102	5,332	1,144	453	691	149	134	-
강원 춘천시	춘천시립도서관	12,662	4,167	578	450	128	50석	52석	장애인실
	춘천시립 소양정보도서관	2,401	937	106	0	106	78석	-	애니메이션 영상/생물산업 특화 도서관
	춘천남산도서관	2,862	998	177	102	75	-	20석	농업특화 도서관
	춘천동내도서관	3,392	1,045	182	96	86	-	24석	정보검색 세미나실
	평균	5,329	1,786	260	162	98	32석	24석	-
전북 전주시	전주시립완산도서관	7,424	6,626	1,500	824	676	240석	30석	행정자료실 고서자료실 보존서고 등
	전주시립금암분관	3,154	2,712	725	516	209	100석	30석	전자정보실
	전주시립인후분관	5,596	2,290	720	620	100	90석	20석	전자정보실
	전주시립삼천분관	1,182	2,664	829	590	239	164석	50석	전자정보실
	평균	4,339	3,573	943	637	306	148석	32.5석	-

이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협소한 부지는 향후 도서관 확장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수행을 어렵게 하며, 현실적 주차문제 등을 유발하여 쾌적한 환경제공과 편안한 이용을 어렵게 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3. 3 이용자 조사 분석

도시개발변화에 따른 도서관 신축부지선정은 해당 도시는 물론, 도서관과 이용자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지향하는 함의는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여 굳이 우선순위를 가릴 필요가 없지만, 이용자 측면

에서 사고하는 바를 종합하여 그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의견을 심층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자명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본 연구는 이용자를 도서관 내부 및 외부이용자로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질문하였다. 여기에서는 도서관 신축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본 설문은 기존 도서관에 대한 사항만을 조사하였고, 미래에 어느 지역에 신축하였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은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가상 질문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용자 각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불만족 사항을 체크하여 개선하는 것도 신축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용자 조사기간은 2004년 6월 3일에서 동년 8월 10일에 이루어 졌고, 조사대상은 도서관이용자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252명과 내부이용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도서관 위치에 대한 적절성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시설이 집중

되어있는 업무활동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운집하고 접근하기 편리한 지역사회의 중심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전주시 공공도서관은 동의 개념으로 보면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동의 중심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권에서 벗어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표 9>는 도서관 위치의 적절성을 조사한 내용이다. 이용자의 약 39%와 직원들의 약 43%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도서관 위치선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건립될 도서관은 이용자의 생활권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고, 접근하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도서관 위치에 관한 내용에 이어, 본관을 비롯한 각 분관을 별개로 하여 조사해보았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이용자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도서관은 인후가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완산 48.3%, 금암 27.3%, 삼천 18.8%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인후와 완산도서관은 고지대인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생활권과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급경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장애자들의 접근이 어려우며 차량접근도 쉽지 않은 결과로 판단되

<표 9> 도서관 위치의 적절성

위치의 적절성	이용자 빈도(%)	직원 빈도(%)
무응답	0(0)	0(0)
매우적절	7(2.8)	1(3.3)
적절	63(25.0)	7(23.3)
보통	84(33.3)	9(30.0)
부적절	60(23.8)	9(30.0)
매우 부적절	38(15.1)	4(13.3)
합계	252(100)	30(100)

〈표 10〉 도서관별 위치의 적절성

분관	도서관위치					합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 부적절	
완산	0	10	21	19	10	60
금암	2	7	23	10	2	44
삼천	4	41	24	12	4	85
인후	1	4	11	15	19	50
이동	0	1	5	4	3	13
합계	7	63	84	60	38	252

고,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난 금암은 도심권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과 접근의 편리성이 다소 나은 결과로 사료되며,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삼천은 도심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면의 높이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여 편리한 접근을 제공한 결과로 분석된다.

2) 도서관 주변 환경에 대한 적절성

공공도서관의 부지는 장래의 확장을 고려하여 적어도 현행 법적 기준에서 세워진 건물면적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확보함과 더불어 주차공간과 자전거 보관 및 주변 조경을 위한 공간으로 적어도 현 법적기준의 0.5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한국도서관협회 1994).

이는 도서관이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증축할 여지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가 운전자를 위한 주차문제와 생활속의 도서관문화, 환경의 쾌적성 등을 위한 여유 공간은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중요시하는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표 11〉은 도서관 주변환경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용자는 도서관 외부환경에 관한 사항에 약 32%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직원은 만족한 응답이 43%로 불만족하다는 응답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와 직원 모두가 비교적 만족하는 입장으로 나타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산, 인후도서관은 생활권 주변인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막힘이 없는 전망을 가진 결과로 판단되고, 삼천도서관은 공원과 함께 위

〈표 11〉 도서관 주변환경의 적절성

주변 환경 적절성	이용자 빈도(%)	직원 빈도(%)
무응답	0(0)	1(3.3)
매우적절	13(5.2)	2(6.7)
적절	70(27.8)	11(36.7)
보통	89(35.3)	9(30.0)
부적절	64(25.4)	5(16.7)
매우 부적절	16(6.3)	2(6.7)
합계	252(100)	30(100)

치하여 자연스런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새로이 건립되는 도서관은 효율적인 건물로서의 역할은 물론, 주차, 문화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3) 도서관의 접근성

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하여 드나들기 쉬운 건물이어야 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어야 한다(한국도서관협회 1994). R. Myller는 공공도서관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공용주차장이 가깝거나 부지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는 곳, 대중수송기관에 가깝고 보행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이 좋은 위치라고 하였다. 전주시 공공도서관은 삼천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동의 주변지역과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불편하다. <표 12>는 이용자의 도서관 접근방법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용자가 도서관에 찾아오는 방법은 도보가 52.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자가용 22.6%, 대중교통 15.9%, 자전거 5.2%, 셔틀버스 2.0%, 기타 1.6% 순으로 나타났다. 도보는 도서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걸어오는 경우도 포함한 비율이어서, 지근거리의 순수

도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자가용은 인근 공용주차장이나 도서관 주차장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비율이다. 자가용 이용자가 대중교통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차량보유자가 증가한 연유이지만, 그만큼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내포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도서관과 아주 가까운 정류장에 하차하여 이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자가용 이용자의 비율보다 적은 것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셔틀버스의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이다. 전체 이용자의 2%만이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접근수단의 용이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새로운 도서관부지선정 계획수립

4.1 비전 및 목적설정

IFLA/UNESCO 가이드라인(IFLA 2001)을 보면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교육, 정보, 개인의 발전, 어린이와 청소년 독서, 문화발전, 지역사회 사랑방(drawing room of the community)

<표 12> 이용자의 도서관 접근방법

교통수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축적 퍼센트
도보	133	52.8%	52.8%	52.8%
자가용	57	22.6%	22.6%	75.4%
대중교통	40	15.9%	15.9%	91.3%
자전거	13	5.2%	5.2%	96.4%
셔틀버스	5	2.0%	2.0%	98.4%
기타	4	1.6%	1.6%	100.0%
합계	252	100.0%	100.0%	

등으로 말하고 있고,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IFLA 1994)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지식관문(knowledge gateway)으로써 교육, 문화, 정보를 위한 살아있는 힘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지식정보사회는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필요하게 되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일반적인 사회교육과 생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특히 정보교육과 관련하여 인터넷 전자정보의 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교육은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공공도서관은 문화의 보존과 계승 발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컨텐츠를 구축하고 향토자료를 보존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고유한 지식정보자료의 망라적인 수집과 관리는 물론, 다양한 사회문화활동의 중심지로서 문화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이 건립될 도서관의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면 <표 13>과 같다.

4. 2 신축건립의 필요성

정보화사회로 인한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인식 및 능력향상과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활용요구, 일반생활지식과 교양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화활동을 생활속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향후 전주시 인구를 100만 명(전주시 비전내용)으로 상정하면, 현재 5(송천도서관 포함)개 도서관으로는 지역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없어 절대적으로 신축 건립이 필요하다.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2001)는 인구 6만명 당 1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주시가 이를 충족시키려면 전체적으로 16~17개 도서관이 필요하고, OECD

<표 13> 비전 및 목표설정

구분	내용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평생교육·정보이용·전통문화를 선도하는 대표도서관 실현 - 대표도서관에 걸맞은 첨단 도서관 설립 - 도서관의 주도적 운영으로 지역내 낙후된 타 도서관 선도 - 국제 및 국내도서관 간의 도서관 상호협력 핵심역할 수행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 지역사회 평생교육 및 학습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과 성숙된 자아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새로운 정보기술 습득을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 지원 - 각급 이용자의 학습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 ○ 정보 - 지역사회 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추진 및 정보이용의 평등사회 구현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고취를 위한 효율적 정보 활용 - 지역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제공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역할수행 ○ 문화 - 전통문화전승과 문화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컨텐츠 구축 및 향토자료의 보존 제공 -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제공

(약 4만 명)와 문화관광부(6만 명) 기준의 중간치인 5만 명을 상정하면 20개의 도서관이 필요하여 향후 많은 도서관 신축이 필요하다.

한국 공공도서관 1곳의 인구수는 104,394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공공도서관 시설이 좋은 핀란드(3천174명), 독일(3천971명), 덴마크(4천583명), 프랑스(1만3천982명) 등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일본(4만8천852명)은 물론 말레이시아(4만4천144명)보다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봉사대상 인구수에서도 전주시는 155,094명으로, 문화관광부에 따른 공공도서관 한 곳당 인구수 10만 4398명(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이룸)보다 50,696명이 많고, 전북지역의 1관 당 봉사대상 인구수인 55,824명 보다 약 10만여 명이 많아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도서관건립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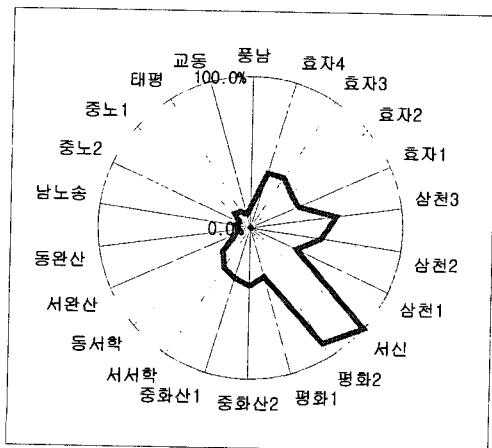
4. 3 신축도서관 부지선정 계획수립

4. 3. 1 입지선정을 위한 인구통계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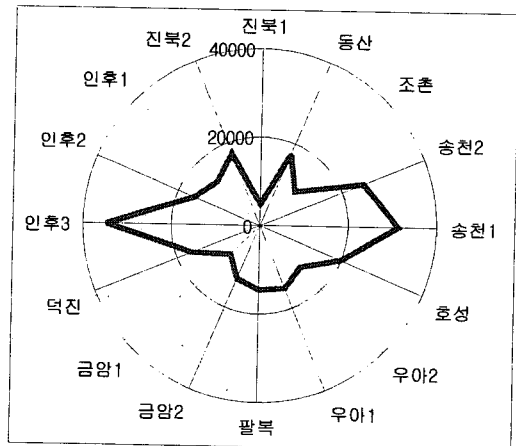
전주시는 2개 구, 40개 동으로 총 세대는 201,263 세대에 인구는 620,374명(2003/12/31)이다. 이 가운데 남자는 306,550명, 여자는 313,824명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외국인 거주자는 1,555명(남:571명, 여:984명)이다. 완산구는 110,365세대, 343,323명이고, 덕진구는 90,898세대, 277,051명으로, 완산구가 19,467세대, 66,272명이 더 많다. 세대수와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동은 서신동으로 약 14,088세대, 46,791명이고, 평화2동이 12,776세대, 42,102명, 인후3동이 10,991세대, 34,79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인구수가 2만 이상인 동은 송천1동, 송천2동, 삼천2동, 삼천3동 등이다. 각 구의 동별 인구수는 <그림 2, 3>과 같다.

연령별 인구현황은 전체 618,819(외국인 제외)명 가운데 30대가 108,48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103,686명), 40대(99,758명), 10대(96,23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완산구는 30대와 40대의 인구가 많은 반면, 덕진구는 30대와 20대의 인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층과 10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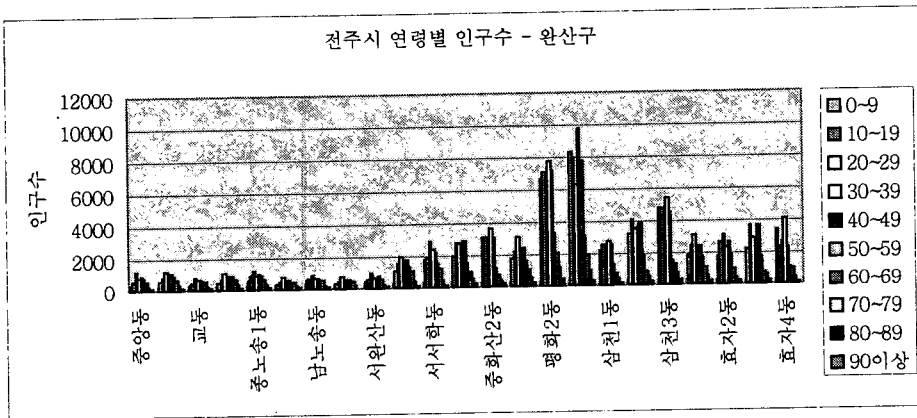
<그림 2> 완산구 동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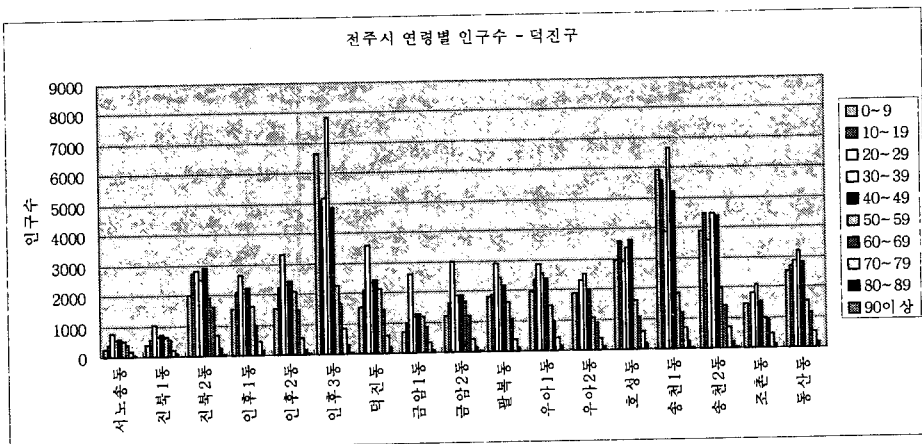
<그림 3> 덕진구 동별 인구수

타난 지역은 서신동, 삼천2,3동, 효자4동, 중화산 2동, 인후3동, 송천1동 등이다. 이들은 30대 부모들과 함께 거주하는 동으로, 특히 서신동은 그 정도가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다. 20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은 태평동, 중노송1동, 서완산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평화1동, 효자 1,2동, 인후1,2동, 덕진동, 금암1,2동, 팔복동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젊은층 밀집 지역인 도심이거나, 인근 주변에 대학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개발도시로서 신흥 거주지역인 서신동을 비롯하여, 중화산2동, 삼천3동, 효자4동, 인후3동, 송천1동 등으로, 10대 이하의 아동, 청소년층이 많은 곳에서 나타났고, 50대 이상의 장, 노인층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3동, 진북2동, 인후3동, 송천1,2동, 동산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 5>와 같다.



<그림 4> 연령별 완산구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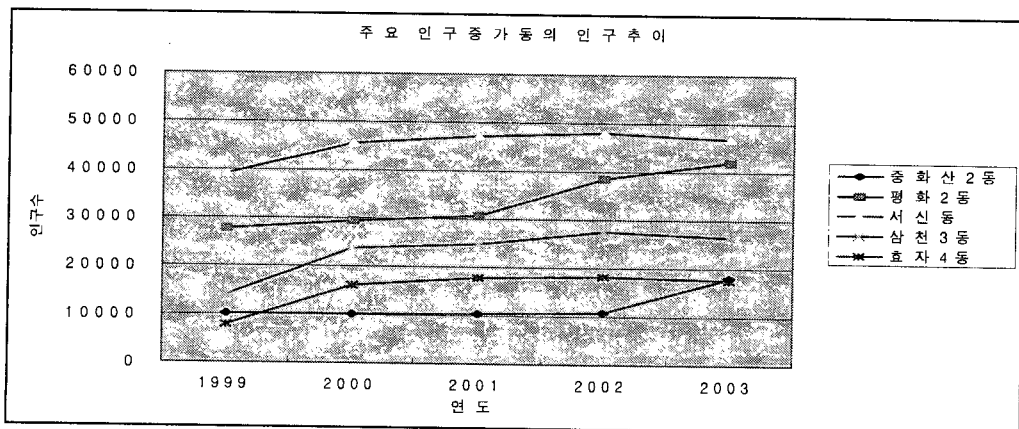
<그림 5> 연령별 덕진구 인구수

5년간(1999~2003년) 인구추이변화를 살펴보면, 세대수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인구수는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에 다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완산구의 인구는 세대수와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1999년도와 비교하면, 2003년 말 현재 16,047세대, 20,404명이 증가되었다. 반면에 덕진구는 세대수는 증가하나,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건에서 세대수는 9,271세대 증가하였으나, 인구수는 오히려 373명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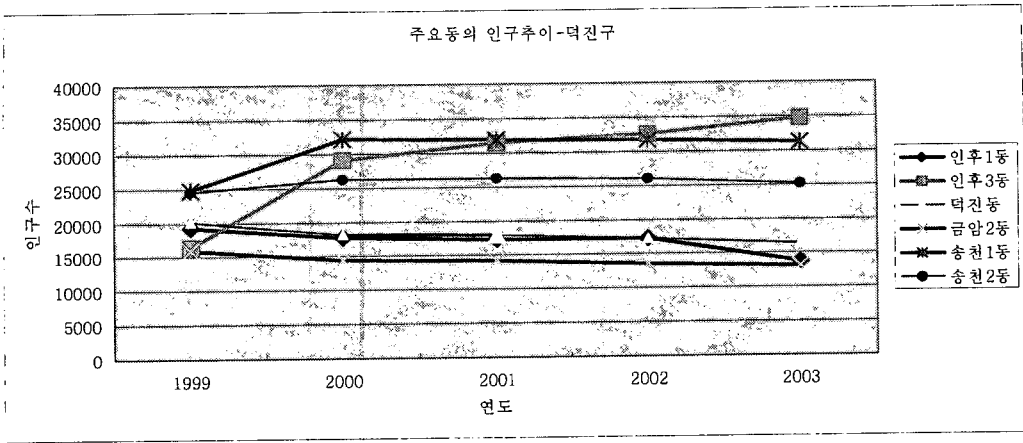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동은 9개인데 비하여 감소한 동은 31개 동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동은 인후3동으로 약 18,000명이 증가하였고, 평화2동이 약 14,500명, 삼천3동 약13,500명, 효자4동 10,000여 명 등 1만 이상이 증가한 곳이 4개 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서신동도 약 7,000여 명이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었고, 송천1, 2동도 약 13,000여 명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은 인구 감소를 보인 동은 인후1동으로 약 5,500명이 감소하였고, 덕진동이 3,500여 명, 삼천1동 3,000여 명, 금암 1,2동 약 5,0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덕진구 보다는 완산구가, 그리고 시의 중심지역 보다는 약간 외곽으로 벗어난 부도심지역과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6, 7>과 같다.

최근 도서관 이용률을 보기 위하여 5년(1999~2003) 동안의 기간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모든 도서관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삼천도서관은 개관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는 도시개발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해당 동은 물론 주변 동까지 들어서면서 인구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이 인구수가 삼천도서관 이용자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완산과 금암도서관은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도서관의 이용현황은 향후 이용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



<그림 6> 완산구 주요동의 인구추이



〈그림 7〉 덕진구 주요동의 인구추이

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도서관 열람자 수를 나타내면 〈표 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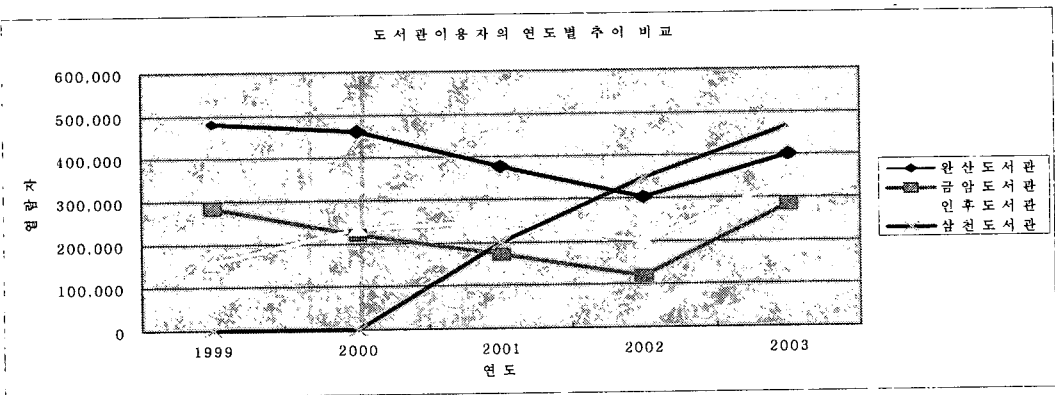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주시 인구는 서신동이 46,791명(14,088세대)으로 가장 많고, 평화2동 42,102명(12,776세대), 인후3동 34,793명(10,991세대) 순이다. 이외에 인구수가 2만 명 이상인 동은 송천1동, 송천2동, 삼천2동, 삼

4. 3. 2 단계별 부지선정 계획수립

- 1) 1단계: 서신지구, 평화지구 선정

〈표 14〉 전체 도서관이용자 연도별 비교표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완산도서관	479,304	460,685	378,087	303,024	399,923
금암도서관	283,270	219,935	172,773	119,077	283,749
인후도서관	157,922	233,094	248,300	200,160	339,879
삼천도서관	-	-	198,253	349,037	467,010
계	920,496	913,714	997,413	971,298	1,490,561



천3동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세대와 인구 수를 보이는 서신동과 평화동 지역은 도서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웃 도서관 접근성도 떨어져, 도서관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곳을 포함한 완산구는 1999년도와 비교하면, 2003년 말 현재 16,047세대, 20,404명이 증가되어, 세대수와 더불어 인구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현상이 신도시라는 이점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산구에 대한 도서관 신축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부지는 서신지구와 평화지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구가 증가한 동은 9개 동으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동은 인후3동으로 약 18,000명이 증가하였고, 평화2동 약 14,500명, 삼천3동 약 13,500명, 효자4동 10,000여 명 등 1만 이상이 증가한 곳이 4개 동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송천1,2동도 약 13,0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후동과 삼천동은 도서관이 개관되어 있고, 송천동은 현재 건립중이어서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가 무리없게 보인다. 그러나 서신동과 평화동, 효자동 지역은 많은 인구증가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아 시민의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인근의 삼천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삼천도서관은 이미 이용 포화상태로 업무가 폭주하여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그 대책의 1단계로 서신과 평화지구를 최우선적 도서관신축 적합부지로 선정하고자 한다.

2) 제 2단계: 효자지구, 경원·중앙지구 선정
 효자지구는 과거로부터 대단위 면적에 농업 위주의 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 지역이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함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효자 1동에서 4동까지 확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부 신시가지의 개발과 함께, 도청과 경찰청, 도의회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이전과 맞물려, 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효자지구는 도서관 신축에 적합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부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있는 효자동 단지 내에 도서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기존 지역에 선정하는 일보다 어려움이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건물들이 들어서기 전에 도서관 신축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다른 환경에 비하여 수월하기 때문이다.

경원·중앙지구는 과거에 시를 형성하고 있는 도심의 중앙이었고 상업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이었다. 또한 주요 교통의 중심지였고, 도청과 시청은 물론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있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개발로 인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상당한 인구와 각종 기관 등이 신도시로 이동하게 되었고, 지금은 도시발전은 물론 변화의 영역에서 떨어진 구 도심권이 되었다. 이에 본고는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경원·중앙지구를 전통 문화중심 도서관 설립의 적합한 부지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 지역은 지가하락으로 인한 실제적 부지매입과 상대적 비용이 효과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청사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상호 긴밀한 정책

협조와 행정적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 제 3단계 - 도시계획을 고려한 인구집중 지역 및 도시균형발전지역 선정

이 단계는 앞으로의 개발이 정책적으로 예측되는 시점에서 그 대상지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마련한 단계이다. 즉, 미래에 있을 계획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향후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인구집중도와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와 교육,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전주시 공공도서관 부지선정 계획수립을 단계별로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단계별 입지선정 수립계획

구분	신축부지 선정지역
제 1단계(2005~9)	- 서신, 평화지구 신축
제 2단계(2010~4)	- 효자, 경원·중앙지구 신축
제 3단계(2015~)	- 인구집중지역 - 도시균형발전대상지역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시개발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신축부지선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전주시를 기본 모델로 실험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입지선정 이전에 검토해야 할 법적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기본적으로 살펴야 하고, 필요시 국공유지 확보에 따른 관련법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입지특성 및 입지기준은 교통의 접근성과 지역의 중심성 및 지형과 지세를 고려해야 하고, 환경적 쾌적성과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실험적으로 수립한 전주시 공공도서관 부지선정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지역의 도서관 현황과 전국공공도서관 현황 및 세계 주요도시와 유사지역 도서관을 비교한 결과, 전주시 공공도서관부지면적은 전국평균뿐만 아니라, 전북평균보다도 적게 나타났으나, 건물면적은 전국과 전북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지면적은 적은데, 건축면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협소한 부지공간에 많은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향후 도서관 확장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수행을 어렵게 하며, 현실적 주차문제 등을 유발하여 쾌적한 환경제공과 편안한 이용을 증진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관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전주시 공공도서관 위치에 대한 적절성은 이용자(약 39%)와 직원들(약 43%)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도서관 주변 환경에 대한 적절성에서도 이용자들은 도서관 외 부환경에 관한 사항에 약 32%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서관의 접근방법도 일반대중교통이 아닌 도보(52.8%) 및 자가용(22.6%)이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도서관 위치선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건립될 도서관은 이용자의 생활권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고, 접근하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차, 문화생활 등을 위

한 공간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전주시 공공도서관 부지선정계획을 단계별로 제안하면, 제1단계는 현재 개발도시로 세대 및 인구가 가장 많은 서신지구와 평화지구를 최우선적 적합부지로 선정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인구가 동추이로 보아 앞으로도 많은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웃 도서관의 서비스 포화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는 현재 서부 신시가지개발과 함께, 각종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구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효자지구와 구 도심권인 경원·중앙지구를 적합부지로 선정한다. 효자지구는 실제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계획적인 부지선정이 유리하다는 점이 있고, 경원·중앙지구는 구 도심권의 도시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적합할 것이다. 제3단계는 도시계획을 고려한 인구집중지역 및 도시균형발전지역을 향후에 선정한다. 이는 미래에 있을 도시개발에 공공도서관건립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실행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ob Usherwood. 1996.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오동근 옮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원전: The public library as public knowledge, 1989.
- Philip Gill. 2002. 『공공도서관 서비스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옮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원전: The public library service: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2001.
- Pierre Levy. 2000. 『사이버 문화』, 김동윤, 조준형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원전: Cyberculture.
- Wheeler, J.L. 1958, *The Effective Location of Public Library Building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한국도서관협회(1994), 도서관정보관리편람, 944.
- 강서구. 2002. 『강서구립도서관 건립타당성 조사보고서』. [서울]: 강서구.
- 강영숙. 2004. “공공도서관 건축계획 사례 - 인천광역시 연수도서관 건축을 중심으로 -”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172839>> [2005.01.17].
- 군포시립도서관. 2003. 『군포시립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도서관 중장기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경기]: 동도서관.
- 김정혜. 2000. 도서관건물기획/Marie-Francoise Bisbrouck. 『국회도서관보』, 37(1): 95-105.
- 대구광역시. 2002. 『구수산공원내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보고서』. [대구]: 대구광역시.
- 서동미. 2000. 변화하는 환경과 도서관 인텔리

- 어. 『국회도서관보』, 7(2): 75-81.
- 이상복. 2004.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491-516.
- 이정미. 2004. 공공도서관 건축의 새로운 像에 대한 제안, 『2004년도 춘계 정보관리강좌 및 워크샵 자료집』, 97-8.
- 임명순. 1991. 『공공도서관운영론』, 서울: 구미무역.
- 전북통계연보 :
<<http://stat.jeonju.go.kr>>[2004.05.17].
- 전주시립도서관 :
<<http://lib.jeonju.go.kr>>[2004.05.17].
- 전주시청 :
<<http://www.jeonju.go.kr>>[2004.05.17].
- 전주완산구청 :
<<http://www.jeonju.go.kr/guchung/wansan/intro06.asp>>[2004.12.15].
- 한국도서관협회 :
<<http://www.korla.or.kr>>[2004.06.24].
_____, 2003.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동협회.
- _____, 1992. 『공공도서관 표준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동협회.
- _____, 1994. 『도서관정보관리편람』, 서울: 동협회.
- _____, 200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동협회.
- 한국사립문고협회 :
<<http://www.reading.or.kr>>[2004.05.17].